

AIR HAT

Background

국내 등산, 트레킹 인구가 3169만 명에 이르게 됨에 따라 한 해에 1650건, 하루 4.5건 꼴로 산악사고가 발생하고 있다. 특히 산악 사고 유형 중 실족, 추락 사고는 40.7%로 가장 높은 비율을 차지하고 있으며 이 경우, 후두부 부상의 위험성이 높고 신체에 치명적인 후유증을 남기게 된다.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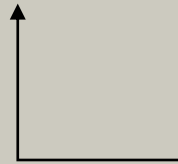
등산객들은 자외선 차단, 온도 유지 등을 목적으로 모자를 착용하기 때문에 기존 등산용 모자는 안전성이 부실하며 실족, 추락 사고 발생 시 생명과 직결된 신체 부위인 머리와 목을 보호하지 못한다. 이에, 머리와 목을 보호해 주는 에어백이 부착된 'AIR HAT'을 만들어 실족, 추락 사고를 최소화하고 등산객들이 안전하게 아웃도어 활동을 즐길 수 있도록 돕고자 한다.

Solution

'AIR HAT'은 목을 감싸는 버킷햇 모양으로 에어백이 들어간 제품이다. 에어백에는 충돌이 일어나도 폭발하지 않는 안정적인 화합물인 '아지드화나트륨'이 들어가 있으며, 사고 감지를 위해 모자 안에 뇌파 감지 시스템을 넣어 추락 직전에 나타나는 뇌파를 탐지해 0.3초 이내에 에어백이 감싸는 형태로 퍼지게 설계된 제품이다.

AIR HAT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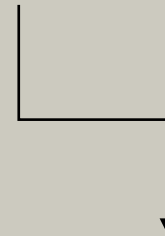
노스페이스 로고



에어백



뇌파 감지 후 0.3초 이내에 부풀어 오른다



뇌파 감지 시스템

모자 내부 에어백 사이에서 시스템 작동